

LGBT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 연구

오세란*

국문초록

본고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한국 LGBT 청소년소설 속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을 고찰해 보았다. 최근 한국문학 분야에서 LGBT 문학이 증가한 만큼 LGBT 청소년소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LGBT 청소년소설에서는 첫째 성소수자 인물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지만 도리어 부모나 형제로부터 거절과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 인물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맞서 자신감 회복을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둘째 LGBT 작품에서 차별과 배제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학습권과 등교권이 박탈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해 검열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몇몇 작품에서 자신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행동은 스스로 자기존중을 지키기 위한 인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작품 속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일상 공간에서 연대의 경험을 갖지 못할 때 그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연대를 찾는다. 사랑하는 친구관계를 통해 가족과 학교에서 얻지 못한 사랑과 연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소수자들만의 연대를 만들기도 한다. 한편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과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성적정체성이 다른 타자나 집단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성찰도 필요하다.

* 충남대학교 강사, bookyoh@hanmail.net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시급하기에 그것을 문학으로 구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 주제어 :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성소수자 청소년, 청소년소설, LGBT

목차

- | | |
|-------------------------|----------------------|
| 1. 한국 LGBT 청소년소설과 자아정체성 | 4. 사회적 연대를 통한 소속감 찾기 |
| 2. 성소수자인물의 가족 내 갈등 양상 | 5. 결론 |
| 3. 권리 배제의 공간, 학교 | |

1. 한국 LGBT 청소년소설과 자아정체성

본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출간된 LGBT 청소년소설¹ 속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도 LGBT 문학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담론과 비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LGBT 청소년소설은 일반문학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작품이 출간되어 왔다. 그럼에도 한국 LGBT 청소년소설의 검토 작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5년 2월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

¹ 성소수자를 뜻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는 그중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칭하고 분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GBT라는 단어(홍기욱,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 법학과(박사), 2016, 7면 참조)와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급이 삭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와 언급도 금지된다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나 다양한 성적 지향 등의 용어는 배제되고 이성애 중심의 관점만을 담고 있으며, 이성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도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² 동성애는 여전히 학교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훈육되어야 할 일탈로 간주되고 있다.³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 자살 시도에 비하여 그 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8세 이하 성소수자 가운데 무려 45.7%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치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다 진지하게 경청해야할 시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처한 정체성의 문제를 문학 속 인물에 비추어 짚어보고자 한다.⁵ ‘동성애는 금기의 영역인 성(性)의 문제를 와해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영체로서의 소설에서 마땅히 포용해야할 소수성⁶이다. 우리는 문학에 성적 소수자성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검토하여 현실과의 상관관계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연구에는 정신분석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E. H. 에릭슨의 이론을 대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에릭슨은 인생을

2 김지연, 「퀴어 영화에 재현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미지」,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2017, 17면.

3 주재홍,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177면.

4 나영정, 「연구 책임·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임연구 연구 수행」,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친구사이 2014, 36면, 강수환, 「정체성은 말할 수 있습니까? 최상희, 은이정, 이진의 단편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창비어린이』 17(1), 2019, 137면 재인용.

5 한국 청소년소설과 성소수자를 중심 주제로 삼은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관한 사회학 논문과 일반문학 및 영화서사 관련 논문을 참고로 삼고 성소수자 관련 청소년문학 평론을 본문에서 함께 살피는 것으로 선행 연구 검토를 대신하려 한다.

6 조병덕, 「현대 단편소설의 동성애 모티프 연구」, 충남대학 국어국문학과(석사), 2006, 8면 참조.

시기 별로 나누어 ‘인간발달단계’로 제시하고 그중 청소년기의 과업을 ‘정체성 확립’으로 꼽는다. 에릭슨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그들 앞에 놓인 성인기 준비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자신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새롭게 인식하려 노력한다.⁷ 한편 에릭슨이 인간의 정체성은 전 생애에 걸쳐 확립⁸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한국에서는 청소년기를 정체성 형성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에릭슨의 이론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청소년기가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라는 에릭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사회와의 관계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을 적용해보려고 한다. 호네프에 따르면 인간은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투쟁’이라는 자아실현의 과정을 겪는다. 사회의 인정이 아닌 무시가 발생할 때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정관계를 형성하려는 투쟁이 곧 ‘인정투쟁’이다.⁹ 또한 인정투쟁의 핵심 목표는 ‘인정획득’으로, 인정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인정관계는 서로를 인정주체로 받아들이는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집단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¹⁰

구체적으로 호네프는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세 차원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첫째 본능적 욕구와 정서를 지닌 자연적

7 에릭 H 에릭슨, 송재훈 역,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319면 참조.

8 이현재, 「도시민을 위한 인정윤리의 모색, 헤겔, 호네프,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23), 한국여성철학회, 2015, 22~24면.

9 오창우, 「공중의 심리적 기저 인정받기의 개념적 논의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118면.

10 오창우, 위의 글, 123면.

존재로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랑’으로 이때 생성되는 정체성은 ‘자신감’(자기믿음)이다. ‘사랑’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때 폭력과 같이 파괴적인 무시행위가 나타난다. 둘째 이성을 지닌 보편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하게 되며 이때 ‘자기존중’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동등한 권리가 무시될 때 ‘권리의 배제’가 나타난다. 개인은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인간 각자가 개성을 지니고 있는 특수한 존재로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인정받은 개인은 자신도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사회적 연대에 소속되지 못한 개인은 존엄성을 부정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무시 행위에 처한 인간은 ‘인정투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전환해 나가려 한다.¹¹

위의 과정을 호네프가 제시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¹²

인정 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와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 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 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실천적 자기 관계	자신감(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 부정, 배제	존엄성 부정, 모욕

11 위의 글, 118~119면.

12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 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249면 참조.

현재 한국 LGBT 청소년소설은 호네프의 ‘인정투쟁’을 통해 인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호네프의 이론은 단순히 “인정”받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손상(moralische Verletzung)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부당함”을 겪은 체험이야말로 자기관계, 도덕, 인정 등의 내적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실마리가 된다.¹³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LGBT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문제를 호네프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문학의 반영체인 현대사회 청소년 성소수자의 문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성소수자 인물의 가족 내 갈등 양상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인류사를 발전시킨 두 가지 동기를 ‘물질적 동기’와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제시한다. 그 중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 대하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불행을 느끼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⁴ 이 말은 다소 과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호네프 역시 인간의 정체성에서 관계에 그 무게를 둔다. 그는 본능적 욕구와 정서를 지닌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인정관계를 ‘사랑’이라고 명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타인에 의

¹³ 이현재, 앞의 글, 13~14면.

¹⁴ 오창우, 앞의 글, 116면.

해 정서적으로 인정될 때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¹⁵ 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닌 무시의 방식은 폭력과 같은 신체적 학대이다. 신체적 학대는 자신감의 훼손을 가져오고 그 결과 인간은 치욕을 느끼며, 자기와 세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¹⁶

청소년은 아동과 더불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가족, 특히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기 신뢰의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다른 소수자와는 달리 가족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다. 가령 장애인인 사회에서는 차별에 처하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보호와 애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성소수자는 가족 내에서도 거부되거나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성소수적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가족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¹⁷

한국에서 LGBT 청소년소설은 이경화의 『나』(바람의아이들, 2006)부터 주로 언급된다. 이 소설은 2003년 타계한 19살의 故 육우당(六友堂)이라는 성소수자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청소년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정현과 상요라는 두 명의 게이 청소년이 등장한다. 정현이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반면 상요는 커밍아웃을 한 상황이다. 상요가 집에서 자신이 게이임을 밝히자 아버지는 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

상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서 있겠지. 아버지가 상요의 따귀를 때린다. 상요는 그저 묵묵히 맞고 있다.

“다시 말해 봐! 뭐라고?”

15 오창우, 117면.

16 악셀 호네프 저, 위의 책, 252~253면.

17 박건, 「한국사회 성소수자 차별경험의 재인식 -무시와 모욕의 인정이론 해석을 통하여」,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68면.

“게이요. 게이! 나는 게이라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철썩, 철썩, 철썩.

화가 끝까지 난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칼을 꺼내 든다. 칼날이 시퍼렇다.

“죽여주마!” (136면)

「버간디 센트」(은이정, 『어린이와 문학』 2018년 11월호)는 중3 남학생 박수빈의 이야기로 한국사회에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외모 관리, 그 중에서도 손톱손질과 페디큐어에 관심이 높아 갈등이 벌어진다.

“이 쌍놈의 자식!”

발톱에 솔질을 하느라 둥글게 말린 어깨 위로 땀내 나는 발이 다짜고짜 날아들었다. 박수빈은 레드 바이올렛 매니큐어 병과 솔이 달린 뚜껑을 양손에 하나씩 쥔 그대로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혁 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하고 박수빈이 허둥지둥 몸을 세웠다.(중략)

불과해진 아빠 얼굴을 보았다. 아빠가 천정을 노려보며 숨을 한껏 들이켰다 길게 뱉어 냈다. 술과 안주 냄새가 뒤엉켜 역겨웠다.

“사내자식이, 공고에 가서 펜치 들 새끼가 대체 무슨 짓거리야.”(86~87면)

위의 예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는 기존 통념에 기대어 ‘남자다움’과 ‘남자답지 못함’을 구별하는 모습을 대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기믿음(자신감)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애착관계에 있는 이들의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지만 도리어 여러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부모로부터 거절과 폭력을 당한다.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

는 이유는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체적 위협을 통해 자식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작품 『나』에서 사랑이 아닌 폭력이라는 무시를 당한 상요는 자기 믿음을 잃고 자살을 하고 만다.

한편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나 남매는 부모 이외에 가장 가까운 혈연이며 비슷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고민을 비교적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관계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물들은 다른 형제들의 지지 역시 받지 못한다. 형제나 자매는 교류하는 토래 집단의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제가 성소수자임이 밝혀질 때 겪는 무시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나는 즐겁다』(김이연, 사계절, 2011)에서 여동생 이란은 커밍아웃을 한 오빠 이락에 대해 “오빠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오빠가 정말 싫었다. 더럽고, 추악하고, 징그러웠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친 건지 원망스럽기만 했다. 차라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다. 오빠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살갓이 닿는 것도 싫었고 같은 세탁기를 쓰는 것도 몸서리가 쳐져 따로 빨래를 하기도 했다.”(143-144면)라고 서술한다. 혈연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청소년소설에서 가족 갈등이 심한 이유는 특히 한국 가족제도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표면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공동체이자 혈연집단으로 여겨지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공동체이며 상호 이익집단이고 무엇보다도 이성애 중심 사회의 제도이다. 즉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면서 가장의 가치관이 강요, 계승되며 가족 구성원 개인과 가족전체의 자존심은 동일시된다. 개인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다면 가족까지 함께 냉대를 받게

된다고 여겨진다.¹⁸

이러한 무시 상황에서 성소수자인 이락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에 처한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때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오빠가 아빠를 쏘아보았다.

“락이 너! 니가 어떻게.....,”

아빠가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 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아빠한테 말씀 드린 거였는데. 삼 년 동안 매일 밤마다 고민했다고요. 내일은 아빠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서운했어요.”

오빠 목소리에서 설운 감정이 뚝뚝 묻어났다. (87~88면)

자식이 게이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빠에 맞서 집을 나가는 이락의 행동은 이른바 호네트가 제기한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으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시와 폭력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은 저항한다. 이처럼 작품은 인정투쟁을 통해 성소수자 인물인 이락이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주체의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가족이 성소수자 인물을 사랑으로 대하는 작품도 없지 않다. 『나』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자살에 이른 상요와는 대조적으로 주인공 정현이 오랜 고민 끝에 엄마에게 자신의 사연을 밝혔을 때 엄마를 정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8 박진, 앞의 글, 371면 참조.

“엄마!”

“알고 있었어.”

엄마는 나를 더 꼭 끌어안았다.

“언제부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왜?”

엄마는 나를 놓아 주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다.

“왜 이제야 말을 하느냐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요라는 애 자살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 엄마는 널 잃고 싶지 않다. 널 잃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무엇이든 할 거야.”(206~207면)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송경아, 창비, 2013)은 게이인 성준이 누나인 예경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누나 예경은 “난 (중략) 내 동생이 더 소중한.(중략) 그리고 동성애? 물론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 엄마 아빠가 만약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하지만 난 상관없어. 좀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내 연애 아니고 네 연애고, 네가 감당할 몫이잖아? 나도 찾아봤는데, 그거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158면)라고 동생을 두둔하고 감싼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소수자 인물의 자신감과 대처 자세 그리고 이후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의 열린 시선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

사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권리배제의 공간, 학교

청소년의 경우 자기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애정의 공급원인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성인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은 청소년에게 학교라는 협소한 조직에서 만나는 교사나 학우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행복과 불행은 가를 만큼 결정적이다. 특히 가정과 달리 학교는 공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상호 동등한 권리를 기대하며, 학교야말로 평등이 구현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기도 한다.

호네프는 ‘이성을 지닌 보편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인정관계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상호인정관계를 맺어야 한다.¹⁹ 반면 이것이 무시되는 것이 ‘권리의 배제’다. 한 사회 내에서 동등한 권리에서 배제될 때 인간은 자기존중을 지키기 힘들다.

LGBT 작품에서 차별과 배제는 주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학습권과 등교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성소수자라는 정체성만으로 무

19 악셀 호네프, 앞의 책, 118면.

기정학이나 강제 전학에 처해져 교실이나 학교에서 배제되며 학교의 처벌을 피하고자 학부모에 의해 외국으로 보내지는 등 거주 공간이 강제로 옮겨지기도 한다.

『비너스에게』(권하은, 2010, 자음과모음)에서는 학교에서 주인공이 게이임을 확인하고 엄마를 소환하자 엄마가 주인공을 자퇴시킨다.

“그동안 우리 성훈이 가르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더니 벌떡 일어났어. 비너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따라 일어설 수가 없었어. 엄마가 내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퇴를 결정하며 날 마치 유치원 아이 다루듯 손을 잡아끈 것은, 내게는 선생들이 쏟아 부은 비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굴욕이었어. 나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었고, 그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신에 대해 혀를 물고 싶을 정도였지만, 엄마까지도 아들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먼저라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했어. 나는 그 지경이 되어서도 학교에서 낙오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30면)

위의 예문처럼 엄마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주인공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퇴시키는 등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의해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거취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해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반검열’이라는 제목을 붙여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²⁰ 『줄리엣 클럽』(박선희, 비룡소, 2010)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주임 교사가 ‘이반검열’

20 주재홍, 앞의 글, 207면.

을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학교에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냥개가 공개적으로 이반 색출에 나선 것이다. 교실 뒤 게시판에는 새로운 교칙 위반 검열 항목이 인쇄된 공고문이 나붙었고, 학생들에게도 한 부씩 전달되었다. 검열 내용은 다양했다.

- 동성 교제가 탄로 나면 강제 전학을 시킨다.
- 동성애가 강하게 의심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정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 동성끼리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여학생이 지나치게 머리를 짧게 잘랐거나 남학생이 앞머리를 혹은 뒷머리를 길게 기른 경우 학생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타 등등. (111면)

『줄리엣 클럽』에서 레즈비언인 성소수자 여학생들은 위와 같은 검열로 인하여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자살시도와 자퇴 등이 이어지면서 교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간다.

「52hz」(김혜정,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 우리학교, 2018)에서는 같은 반 급우들이 교묘하게 편집한 사진을 담임에게 전달하고 담임은 주인공과 친구의 관계를 추궁한다.

“기정이란 친한 건 아는 데 혹시나 해서.....”

담임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내밀었다.

관주가 발을 거는 장면은 없이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기정이 감싸 안는 장면, 기정이 흙 자루를 든 채 주저앉는 장면은 빠진 채 내가 기정을 일으키는 장

면, 내 머리칼이 식판에 닿은 장면은 없고 기정이 내 머리칼을 넘겨주는 장면이 사진 속에 들어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시간들을 되돌리기에 급급해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담임의 추궁은 집요했다.(중략) 담임은 우리가 몹쓸 질병을 앓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158면)

이처럼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사건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인권마저 침해당한다.

반면 『나는 즐겁다』에서는 학교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불공평한 징계를 받은 이락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 자신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이 벌이는 행동은 자기존중을 지키기 위한 인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학교에 갈 때까지는 정말 떨렸거든. 그런데 학교 정문에 딱 서니까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지는 거야. 어떤 단호한 결의랄까 그런 것도 아닌데, 괜스레 힘이 났어. 일단 학교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았지. 다들 놀라는 눈치더라고.” (149면)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

오빠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 서명 운동하려고요.”

“서명 운동?”

아빠가 되물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다

였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서명을 받아서 뭘 어쩌려고?”

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몇 분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 징계 취소를 건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고 자료로 내려고요. 내일부터 학교 앞에서 애들 서명을 받으려고 해요.”(154면)

주지한 바 학교라는 공간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평등’의 원리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공간이다. 학교에서의 동성에 검열을 통한 차별과 차별의 경험은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위협을 가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습권 박탈은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인 “부모님과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피해가 부모까지 확대된다.²¹ 따라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를 넘어서는 차원의 인권침해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추상적 개념인 인권을 넘어 구체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즉 시민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의 시민권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할 때조차 소수자를 ‘일반 시민’과는 구분되는, 무언가 결핍된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일반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구분은 결국 근대사회에 작동하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 문제, 표준에서 벗어난 개인에 대한 억압과 배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²² 따라서 작품에서도 성소수자 청

21 박건, 앞의 글, 383면.

22 백영경,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비평』 44(1), 창비, 2016, 109면 참조.

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학생으로의 권리 나아가 시민으로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연대를 통한 소속감 찾기

인간에게 타인은 지옥인 동시에 구원이다. 이 명제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함축한다. 인간 각자가 개성을 지닌 특수한 존재로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인정’은 연대로 발전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공동체의 발전 또한 개별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발전한다고 볼 때 개인과 사회의 상호인정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정유형이다. 사회적 연대를 맺은 개인은 자신도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²³ 반면 사회와 연대를 맺지 못하고 배제될 경우 타자로부터 ‘모욕’이나 ‘가치 부정’ 등의 무시 행위를 겪게 된다.

박상영의 「망냐농의 눈물」(『웃음을 선물할게』, 창비, 2019)은 게이이지만 학급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을 알리고 싶지 않은 고등학생 이언이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 이언이 좋아했던 친구는 갑자기 그를 멀리하며 “너 그거냐?”라고 묻는다. ‘그거’는 이언의 성정체성을 호명하는 단어로, ‘아웃팅’ 당하면서도 단어가 정확히 명명되지 않아 더욱 수치심을 들도록 만든다. 이 장면은 주체가 숨을 곳을 찾는 절망과 사회와의 소통을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동시에 보여준다.²⁴ 즉 이언은 친구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소망

23 악셀 호네프, 앞의 책, 118면.

24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35), 한국여성학회, 2019, 85면 참조.

과 소속될 수 없는 외로움에 직면해 있다. 게이라는 성적체성이 ‘모멸’의 언어로 구체화되는 순간 느끼는 부끄러움은, ‘타자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이라는 굴절된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주체의 감정이다.

「52hz」(김혜정,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 우리학교, 2018)는 주인공이 레즈비언으로 알려진 후 교실에서 급우들의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교실로 들어서려다가 멈춰 섰다. 아이들 몇이 내 자리를 에워싼 채 웅성거렸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었던 듯했다. 변태, 라는 말만 귀에 들어왔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는지 직감으로 알았다.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하던 말을 툇 그치고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서랍에 있던 내 책과 공책이 찢어진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쓰레기” (156)

자신이 소속된 학급에서 정서적 배척을 당하는 경험은 곧 자기가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이진의 「빛 속으로」(『작가들』 2018년 여름호)는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진후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남성 집단’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진후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확인할 때마다 남성의 폭력적 세계에 대한 혐오도 함께 느낀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여자, 미스 김, 트랜스”(108면) 등의 놀림을 받을 때마다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졌지만 “막상 학교를 벗어나 세상에 나와 보니 온 세상이 남학교처럼 굴러가고”(108면) 있었음을 발견한다. 그가 혐오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속한 성별인 남성의 세계다. 또한 ‘남

성 연대'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진후를 아이돌그룹의 다른 멤버나 팬들이 '놀리는 행위'는 그에게 멸시로 다가온다. 그러한 무시 속에서 괴로워하던 진후가 소속 멤버를 싫어한다고 외치는 마지막 장면은 폭력의 위계로 구성된 남성연대에서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다.

학교나 일상적 관계를 맺는 공간에서 연대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소속감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성소수자 인물들은 학교 밖에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다. 무엇보다도 성소수자 청소년을 지탱시켜주는 든든한 연대는 서로 사랑을 느끼는 연인관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같이 다녔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를 알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기정은 낙서를 끼적이고 나는 책을 본다는 것, 기정이 매운 맛 떡볶이를 좋아하고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것, 기정은 딸기를 즐겨 먹고 나는 복숭아를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정이 '헝오'를 좋아하고 나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것, 내가 빗소리를 좋아한다는 것과 기정이 비가 그친 다음의 고요를 좋아한다는 것도, 무엇보다도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150면)

「52hz」(김혜정,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 우리학교, 2018)의 한 장면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 가족과 학교에서 얻지 못한 사랑과 연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 신뢰를 지탱하며 성장한다.

「3학년 2반」(이서영, 『다행히 졸업』, 창비, 2016)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 속 레즈비언 청소년들의 풍경을 담았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여 신촌의 공원에서 정모를 하며 혼자서는 시도할 수 없는 일탈 행위도

별이면서 자신들만의 소속감을 만들어 나간다. 『비너스에게』(권하은, 2010, 자음과모음)에서도 주인공은 엄마가 권유한 상담소에서 또래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모두 학교 폭력 피해자나 거식증 같이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주인공인 성소수자 인물도 사회의 아웃사이더 집단으로 분류된다.

「3학년 2반」과 『비너스에게』처럼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연대를 만들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사회에 인정되지 못했다는 아웃사이더 의식을 안고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의 일탈 행위를 촉발시키거나 위험한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자존감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최근 사회에서는 소속감을 꿈꾸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를 슬기롭게 격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소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가 연대할 때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동일시된다. 따라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연대를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인정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이 도달하게 되는 자신감은 일종의 집단적 자부심이나 집단적 명예감이다.²⁵

그렇다면 개인이 정체성이 같은 집단과의 연대를 넘어 정체성이 다른 집단과는 인정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까? 이 지점에 대하여 이현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일하고 공고하다고 판단할수록 타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호네프의 인정투쟁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정한 집단 정체성이 공

25 악셀 호네프 저, 앞의 책, 246면.

고할수록 다른 정체성의 집단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즉 자신의 정체성은 공고히 할 수 있으나 더 넓은 타자와의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분열된 타자성을 돌아보는 것, ‘가치 판단’을 중지하는 것 등 주디스 버틀러의 인정 담론을 참고해야 한다고 이현재는 주장한다.²⁶ 본고의 주제를 넘어서는 범위이기에 이 부분까지 다루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동일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가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가진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창비, 2018)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천 영종도의 난민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작품에서 ‘난민’은 외국 국적자로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소설은 이러한 ‘난민’의 의미를 사회학적 명명이 아닌 심리적 정체성으로 확장시킨다. 외국인 난민 센터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에는 미혼모, 성소수자, 어린이와 같은 한국인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지만 각자의 사연 때문에 사회에서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난민센터의 외국인 뿐 아니라 ‘허 경사’와 같은 성소수자도 일종의 심리적 난민이며, 이들에게도 연대를 할 센터가 필요하다. 즉 영종도라는 섬에 있는 난민센터는 심리적 난민인 모든 소수자들이 마음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이처럼 입장은 달라도 각자의 소수자성이 타자를 포용하고 공명하는 차원으로 승화되는 장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호네프는 각 주체들이 각자 다양한 인생길을 걸으며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연대’라고 명명한다. 연대가 의미 있는 것은 주체들이 각자 대등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²⁷ 이처럼 작품 속 성소수

26 이현재, 앞의 글, 22~28면.

자 청소년들은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한국 LGBT 청소년소설 속 성소수자 인물의 정체성을 고찰해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도 LGBT 문학이 증가한 만큼 한국의 LGBT 청소년소설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네트는 인간의 정체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정투쟁’이라는 자아 실현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신감, 자기존중, 자긍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랑, 동등한 권리, 연대’가 필요하다. 이 관계가 무시될 때 ‘폭력, 권리의 배제, 멸시’ 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무시에 처한 인간은 ‘인정투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전환해 나가려 한다.

한국 LGBT 청소년소설을 살펴 본 결과 성소수자 주인공이 자기믿음(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애착관계에 있는 이들의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지만 도리어 대다수의 성소수자 인물들이 부모나 형제로부터 거절과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에 맞서 저항하는 성소수자 인물들은 자신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한편 가족이 성소수자 인물을 신뢰로 대하는 작

품도 없지 않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소수자 인물의 자신감과 자세 그리고 이후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가족의 모습을 서사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LGBT 작품에서 차별과 배제는 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학습권과 등교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해 검열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기도 한다. 몇몇 작품에서 자신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행동은 자기존중을 지키기 위한 인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개인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면 개인의 성적체성도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 시민권의 차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 속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일상 공간에서 연대의 경험을 갖지 못할 때 그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연대를 찾아 나선다.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 가족과 학교에서 얻지 못한 사랑과 연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소수자들만의 연대를 만들기도 한다. 한편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가 연대할 때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과 직결되며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다른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한편 정체성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고 설명하기 위한 허구²⁸적 장치이며 정체성이라는 틀을 통해 작동, 유지²⁹되는 사회적 전략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근대적 시각의 해체담론으로 정체성을 재고하는 최근 일반문학계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퀴어 이론에서

28 오혜진, 「지금 한국 퀴어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1)」, 『문학과사회』(31), 문학과지성사, 2018, 84면.

29 오혜진, 위의 글, 88면 참조.

는 개인의 정체성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고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³⁰이며 섹슈얼리티 역시 이데올로기³¹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이분법을 넘어서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 시선을 제공한다. 본고의 차후 과제는 퀴어 이론으로 LGBT 청소년소설을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퀴어이론으로 정체성의 작동방식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을 호네트의 인정투쟁, 즉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LGBT 청소년소설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강수환은 ‘인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권리라고들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의 자리에 자신의 정체성을 기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온 이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로 쓰이고 있다. 그 까닭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쓴다는 것은 곧 인간이 무엇인지를 새로 쓰는 것이다’³²라고 성소수자의 정체성 문제를 보편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본고는 소수자의 자리는 인간 각자가 처한 다양한 자리이며, 청소년 인물들이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청소년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앞으로도 청소년문학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을 더욱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30 로이스 타이슨 지음, 윤동구 옮김,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696면.

31 박이은실, 「퀴어 이론가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 『여성이론』(30), 도서출판 여이연, 2014, 5 142면 참조.

32 강수환, 앞의 글, 143면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권하은, 『비너스에게』, 자음과모음, 2010.
- 김이연, 『나는 즐겁다』, 사계절, 2011.
- 김혜정, 「52hz」, 『그날 밤 우리는 비밀을』, 우리학교, 2018.
- 박상영, 「망나뇽의 눈물」, 『웃음을 선물할게』, 창비, 2019.
- 박선희, 『줄리엣 클럽』, 비룡소, 2010.
- 송경아, 『누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든』, 창비, 2013.
- 은이정, 「버간디 센트」, 『어린이와 문학』 2018년 11월호.
- 이경화, 『나』, 바람의아이들, 2006.
- 이서영, 「3학년 2반」, 『다행히 졸업』, 창비, 2016.
- 이진, 「빛 속으로」, 『작가들』 2018년 여름호.
- 정소연, 「마산 앞바다」, 『옆집의 영희 씨』, 창비, 2015.
- 표명희, 『어느 날 난민』, 창비, 2018.

2. 논문 및 평론

- 강수환, 「정체성은 말할 수 있습니까? 최상희, 은이정, 이진의 단편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창비어린이』 17(1), 2019, 129~143면.
- 김지연, 「퀴어 영화에 재현된 청소년 성 소수자의 이미지」,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2017.
- 박진, 「한국사회 성소수자 차별경험의 재인식 -무시와 모욕의 인정이론 해석을 통하여」, 『정신문화연구』 제 41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65~392면.
- 박이은실, 「퀴어이론가 이브코프스키 세즈」, 『여성이론』(30), 도서출판 여이연, 2014, 133~165면.
- 백영경, 「소수자 인권과 한국사회 시민권의 재구성」, 『창작과비평』 44(1), 창비, 2016, 99~115면.
- 오창우, 「공중의 심리적 기저 인정방기의 개념적 논의 악셀 호네프의 인정투쟁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6(1),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6, 111~133면.
- 오혜진, 「지금 한국 퀴어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1)」, 『문학과사회』(31), 문학과지성사, 2018, 77~101면.
- 이성희, 「탈북소설에 나타난 탈북자의 정체성 구현 방식연구-호네프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로」『우리말글』(56), 2012, 717~738면.

이현재, 「도시민을 위한 인정윤리의 모색, 헤겔, 호네프,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23), 한국여성철학회, 2015, 5~31면.

조병덕, 「현대 단편소설의 동성애 모티프 연구」, 충남대 국어국문학과(석사) 2006.

주재홍,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175~215면.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35), 한국여성학회, 2019, 75~98면.

홍기욱,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 법학과(박사), 2016.

3. 단행본

이현재 저, 『악셀 호네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로이스 타이슨 저,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1.

악셀 호네프 저, 문성훈, 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에릭 H 에릭슨 저, 송제훈 역,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Realization Method
of Sexual minorities Characters in LGBT Youth Fiction

Oh, Ser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LGBT youth minorities characters published in Korea in terms of Axel Honnet's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s LGBT + literature has increased in the field of Korean literature in recent years, Korea's LGBT youth novels need to be reviewed.

First, in LGBT youth novels in Korea, sexual minority youth need the love and trust of their family in order to have an identity of self-confidence. But a large number of youth are rejected and violent by their parents or brothers. Therefore residents of sexual minorities who oppose their parents who do not recognize themselves struggle for recognition to restore their confidence.

Secon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LGBT works are mainly seen as a way of depriving school minors of the right to study and attend school. In school, censorship is also carried out by teachers, and in the process, personal honor is lost. In some works, the act of defending one's right to learn can be called a struggle for self-respect. When the space of school is a social space for learning

and experienc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individual's sexual identity is also a right to be protected.

Third, sexual minority youth find new solidarity that recognizes them when they have no experience of social solidarity in everyday space. Through loving relationships, we may feel the feelings of love and solidarity that we do not have in our families and schools, or we build solidarity for minor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is identified with the collective ident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how the identity is related to other others or groups.

At present, it is urgent to approach sexual minority youth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that raises its own voice. It is a story of individual liberty, equality,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underlie modern society.

- Key words : Axel Honnet,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sexual minority youth, youth novels, LGBT

- 논문접수일: 2019. 10. 29.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